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482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28일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호남의 선택이 대선 좌우한다

민주당 호남 경선 시작…'전략적 선택'이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
이재명, '구대명' 투표율 높이기…김동연·김경수, 숙원사업 공약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 표심의 향배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번주 윤곽을 드러내는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의 결과가 본 경기인 대권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호남 민심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전략적 선택'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 사실상 호남의 선택이 대선 향배를 결정했다는 점에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선 구도가 '구대명'(90% 지지율로 후보는 이재명) 굳혀지는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호남지역의 경선 참여율이다.

후보들은 광주와 전남지역 등의 폭넓은 투표 참여를 동력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지지를 확산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들이 잇따라 호남을 방문해 앞다퉈 지역 숙원사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공을 들이는 이유다.

투표율이 아직 달아오르지 않은 점은 부담이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경선 투표율 집계결과 호남권 권리당원 1일차(23일) 온라인 투표율이 23.2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영남권 순회 경선은 투표율(온라인과 ARS 합계)은 각 55.18%, 60.33%를 기록했지만, 호남권에서는 이에 미치지 않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경선에서 기록한 투표율은 56.2%(12만7823명 중 7만1835명)에 불과했다.

"과거와 비슷한 분위기로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호남 홀대 등의 이유 때문에 민주당에 반감을 가진 지역민들이 늘면서 '민주당 몰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호남 민심 대부분은 '정권 재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지역민들은 민주당 경선에 아직 시큰둥한 모습이다.

이에 각 후보들은 연일 호남 민심 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점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지역이다.

수도권 지역에도 호남 출신 유권자가 많은데다, 호남이 민주당 결집의 핵심적인 촉매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대선에서 호남 민심 결집이 전국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커왔다는 점에서다.

호남이 움직이지 않으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의 선전도 기대할 수 없어 민주당에서는 호남을 반드시 교두보로 삼아야 하는 게 절실하다. 이에 각 후보들은 호남을 찾아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득표율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호남권의 경선 투표율 상승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대명) 구도로 치뤄지는 경선이지만, 투표 참여가 저조하면 당내 반명(반이재명) 정서가 남아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정권교체나 집권시 힘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에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기초의원 등은 경선 투표율 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선 투표 독려 영상 2편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재했고, 문인 북구청장도 개인 SNS에 연일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광주 지방의회 의장단도 당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호남권 경선 투표는 24일부터 25일까지는 ARS투표와 26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전국 대의원 투표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소설 '소년이 온다' 주인공 어머니 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 간담회에 참석해 5·18 유족 김길자씨와 손을 맞잡고 있다. 김씨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주인공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강 노벨상 이후 첫 신간 '빛과 실'…서점가 '들썩'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이후 펴낸 첫 신간 '빛과 실'(문학과지성사)이 온라인 판매 첫날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서점가가 들썩이고 있다.

24일 서점가와 출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빛과 실'은 하루만에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에서 총 1만여부가 판매됐다.

지난해 10월 노벨상 발표 6일 만에 한강 작가 책들이 100만부를 돌파하며 한국 출판 사상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던 만큼, 이번에도 '한강 신드롬'이 재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알라딘에 따르면 '빛과 실' 판매량은 '작별하지 않는다'의 3.7배, '흰'의 8.6배, '소년이 온다'의 104배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 전 출간된 책들의 첫날 판매량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다. 예스24에서도 23일 '빛과 실' 예약판매를 시작한 이후 판매가 급증했으며, 실시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강 작가는 이번 산문집을 통해 살아 있는 한 희망을 상상하는 일, 오래고 깊은 사랑에 대한 기록들을 특유의 시적인 문장으로 풀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전 사위 급여는 뇌물"

文 직·간접 조사 없이 기소 '논란'

문재인(72)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에 서게 됐다. 〈관련기사 2면〉

시민단체 고발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3년 5개월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과 핵심 관계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없이 기소가 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 등과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다혜씨와 서씨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1700여만원을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것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간주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버스 활성화 방안 - 대안형 대중교통 ▶6면
북스 - 'UNVEIL' '유럽 건축사 수업' ▶14·15면
광주FC, 내일 아챔 8강전 "새 역사 쓰겠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